

홍콩 선거혁명...범민주파 85% 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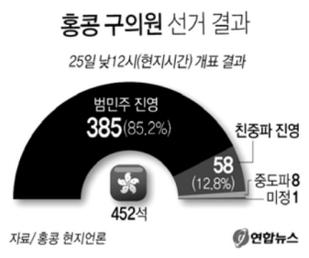
구의원 452석 중 385석 차지
294만명...역대최고 71% 투표율
친중파 궤멸...시위 동력 살아날 듯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최종 투표율도 71.2%로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의 47.0%보다 훨씬 높았다.

앞서 이날 선거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413만명으로, 지난 2015년 369만명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18~35세 젊은 층 유권자가 12.3% 늘어 연령대별로 최대 증가 폭을 보였는데, 진보적 성향의 젊은 층 유권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범민주 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를 위해 해외 유학생까지 귀국해 투표하는 등 젊은 층은 적극적인 선거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함에 따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세에 몰렸던 홍콩 시위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 당장 범민주 진영의 공민당은 승리를 거둔 32명 구의원 후보자 전원이 현재 경찰의 원천 봉쇄를 당하고 있는 홍콩이공대로 달려가 교내에 남아 있는 시위대를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이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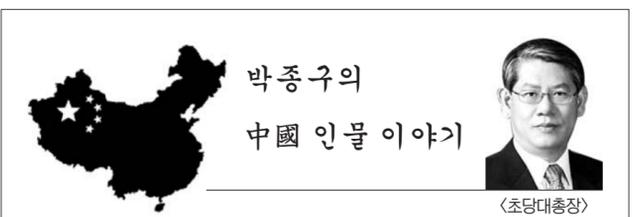
패함에 따라 지금껏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범민주 진영은 이번 구의원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452명 구의원 중 117명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200명의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면서 이 117명 선거인단을 모조리 거갈 수 있게 됐다. 이는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 압승을 기반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됨에 따라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정치개혁 요구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범민주 진영 후보의 지지자들이 25일 환호하고 있다.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접어들어 가운데 홍콩 범민주 진영은 향후 시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전날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208〉 범중엄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자는 희문(希文)이며 소주 오현 사람이다. 북송 인종때의 명신이다.

대중상부 8년(1015년) 진사과에 급제했다. 급제 이후 흥화현령, 비각교리, 진주통판, 소주지주를 역임했다. 직언을 자주해 여러 차례 관직에서 배척되었다. 1040년 한기와 함께 섬서경 락안부초토부사가 되어 둔전구수(屯田守守) 정책을 실시해 북서쪽 변경을 안정시켰다. 경력 3년(1043년) 참지정사가 되어 경력변법(慶曆變法)을 추진했다. 요와 서하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 방만한 관료기구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십사소(十事疏)를 올렸다. 관리의 승진 제도를 엄격히 할 것, 과

했다. 교육에는 절도가 있었고 매사를 솔선수범했다. 밤에도 학생들이 독서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식사시간, 취침 시간도 준수토록 감독했다. 학생들에게 시제를 주어 시부(詩賦)를 짓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사방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훗날 북송 조정에서 문명을 떨친 사람 상당수가 그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북송 중 재상 왕중에게 상서해 정치 득실과 민생 현안에 관해 의견서를 올렸다. 내용이 자제해 무릇 만 여자에 달했다. 왕중이 이를 보고 범중엄을 높이 평가해 요직에 발탁했다. 하루는 동지에 초회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예관이 수렴정정을 하는 장헌태후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가 중신을 거느리고 태후에게 술잔을 올려 장수를 축원토록 요청했다. 범중엄은 예법에 어긋나

북송 인종때 명신...개혁정책 앞장

거제도를 엄격히 실시할 것, 지방관을 잘 선정할 것, 농업과 누에고치 생산을 장려할 것, 공전(公田)을 고르게 할 것, 부역을 줄일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년만에 실패로 끝났다. 변법이 좌절되자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빈주, 등주, 황주, 청주 등지를 전전했다. 1052년 영주지현에 임명되어 부임 중 병으로 사망했다. 병부상서와 초국공에 추증되었고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기쁨을 나중에 기뻐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약양루기(岳陽樓記)에 있는 천하의 명언이다. 주자는 그를 유사 이래 최일류 인물로 평가했다.

고 상소했다. 중신 안수가 대경실책해 꾸짖었다. 그는 정색하며 말하기를 "저는 공의 은혜를 입어 항상 그에 어긋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공께서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게 오히려 정론(正論)으로써 공에게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수는 부끄러워 응답하지 못하였다.

장헌태후에게 상소해 인종의 친정을 주청하였다. 이로인해 산서성 영제현 통판으로 좌천되었다. 장헌태후가 죽자 중앙에 복귀했다. 많은 중신들이 친정에 나선 인종에게 잘 보이려고 장헌태후의 실정(失政)을 들추어내 공격했다. 그만

이 홀로 "태후께서는 선제의 부탁을 받아 폐해를 지켰습니다. 마땅히 그 사소한 잘못은 덮어두고 큰 은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고 주청했다.

그가 참지정사가 되어 추밀부사 한기와 부필과 함께 개혁에 앞장섰다. 각 지방의 지방장관격인 감사(監司) 중 무능한 자들을 대거 교체하려 하였다. 무능한 감사를 가려내 그 성명위에 붓으로 표시를 했다. 부필이 말하기를 "어른께서는 한번 붓으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한 집안이 통곡하게 되는 것은 아십니까?" 한 집안이 통곡하는 것이 한 지방 전체가 통곡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라고 답하며 표시된 전원을 교체하였다.

안수가 남경 유수로 재직시 범중엄이 모친상을 당해 남경 응천부 성내에서 복상 중이었다. 안수는 그에게 부학(府學)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며 학생들을 훈육

친중파 몰락에 시진핑 '중국몽' 구상 흔들

홍콩선거 시민들 반중 정서 표출
시위 강경대응 명분도 크게 약화

홍콩 시위 사태의 분수령인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하고 친중파가 참패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 구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앞세워 홍콩, 마카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대만 통일까지 염두에 뒀던 시진핑 주석의 구상이 홍콩 내 반중 정서 확대로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전날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친중파가 몰락하자 적잖이 당황하면서 향후 홍콩 사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시진핑 주석의 홍콩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발언 이후 시위 집합의 강도를 높여왔던 터라 사실상 반중 감정을 드러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후속 대처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6개월째 접어들어 가운데 이뤄진 이번 선거에 총 294만명의 유권자가 투표해 사실상 홍콩 민심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블룸버그 "트럼프의 위협 4년 더 감당 못해"

美대선 도전 공식 선언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뒤늦게 뛰어난 블룸버그(77) 전 뉴욕시장이 24일(현지시간) 내년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AP와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선거운동 웹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4년 더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를 향해 "그는 우리나

라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라며 "만약 그가 또 한 번의 임기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AP는 블룸버그의 참여는 현재 민주당 후보자들이 트럼프를 꺾기에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시장 등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양자 대결할 경우 우세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흥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